

# 내년 예산안 심사 '최순실게이트'에 묻히나

### 예결위, 최순실 공방만 ... 광주·전남 예산 심의 차질

### 400조 슈퍼예산 졸속심사 우려 ... 법정시한 넘길수도

성장 절벽 등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직면하면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최순실 파문이 건장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일자리와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도 최순실 파문에 묻힐 수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로 운영됐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해 자리를 지켰지만 최순실 의혹 공방만 이어졌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물론 거시경제 및 재정 여건에 관한 질의는 실종,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 '슈퍼예산'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

등으로 최순실 파문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국회예산심사법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되면서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집행된 지역 경기 회복도 어렵게 된다.

최순실 파문으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경

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까지 산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동원,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와 행정을 분리,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소신 있게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관리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특히 현 상황에서는 정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기반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KTX 전라선 4회 증편 ... 1일 24회 운행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하면 KTX를 비롯해 호남·경부선을 지나는 고속열차의 총 운행횟수가 43%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평균 정차역수가 줄어 열차의 평균운행속도가 시속 4km가량 빨라지고 운행시간도 6~7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SRT 개통을 앞두고 28일 선로배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주)SR의 열차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서발 KTX(32편성) 운행으로 경부·호남을 지나는 고속열차의 운행횟수(주말 기준)는 현행보다 42.7% 증가한 총 384회로 확대된다.

경부축은 40% 증가한 총 256회, 호남

축은 49% 증가한 총 128회를 운행한다. 이 가운데 수서발 KTX 호남선은 40편, 경부선은 80편이 포함됐다.

열차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열차의 운행시각(운행시간 간격)은 경부축이 11.6분에서 8.3분으로, 호남축이 24.4분에서 16.4분으로 각각 줄어든다.

경전선(서울~진주)은 24~28회, 전라선(용산~여수)은 20~24회, 동해선(서울~포항)은 20~26회, 서대전 경유 노선(서울~서대전~익산, 용산~서대전~목포, 용산~서대전~여수, 용산~서대전)은 18~22회로 운행횟수가 늘어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생발전 협력과제 확대

### 시도 내달 신규사업 발굴 협의

### 아트투어 남행열차 등 점검도

광주·전남 양 시·도가 11월중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실·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 점검과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도와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지난 2014년 10월 양 시·도가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오랫동안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한계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시·도는 상생협력과제의 실행력 달성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민·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 구성 등 기본적 틀을 만들고 지금까지 4차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4개 협력

과제를 발굴, 6개 과제는 완료하고 18개 과제는 추진중이다.

지난해 9월 광주·전남 상생 1호 과제로 추진한 양 시·도 연구원 통합을 마무리하고 2015년 하계U대회와 국제농업박람회를 상호 지원·협력해 성공 개최로 이끌어 냈으며, 지난 26일에는 광주·전남 캘러리를 서울 인사동에 개관했다.

현재 추진 중인 18개 협력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서울 은평구에 600명 수용 규모로 건립중인 제2 남도학숙은 지난 7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018년부터는 서울에 유학중인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송정역~양림동~소쇄원~죽녹원 등을 연계한 '아트투어 남행열차' 관광코스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올림 '편백숲 힐링음악회'** 30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6 무등올림'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편백숲 힐링음악회가 무등산 편백숲에서 열렸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일대 무등산권 자연·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축제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열린 '2016 무등올림'에는 모두 5만5000여명의 시민이 찾아 무등산과 광주문화를 즐겼다.

## AP "반정부 집회 가장 큰 규모" NHK "혼란 수습 불투명"

### 외신들, 박대통령 퇴진 집회·최순실 집중 보도

주요 외신들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각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9일 열린 대규모 집회도 주목해 보도하면서 최대위기를 맞은 박대통령의 레임덕이 자국과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누가 진짜 대통령이나', '박근혜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며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여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도 집회 현장 사진과 내용을 상세히 전했고, UPI, dpa통신 등도 집회소식을 타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고(故) 최태민 씨가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불린다는 과거 주한 미국대사관의 분국 보고 사실을 거론하며 "비선 실세 루머와 족벌주의, 부정 이득 등이 포함된 드라마틱한 전개의 스킴

들이 박 대통령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썼다.

NHK는 30일 "박 대통령은 인사 쇄신 등으로 사태 수습을 시도하지만 지지율이 사상 최저인 14%로 떨어지는 등 비판이 커 혼란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면과 국제면을 할애해 최순실 게이트 기사를 실었고, 아사히신문은 "전국 각지에서 박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니혼게이지신문도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환구망, 인민망 등 중국 언론들도 박대통령 퇴진과 진상규명 요구 집회, 검찰의 청와대 비서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각 대학의 시국 선언 등을 30일 보도했다.

앞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8면 전체에 '한국이 전역에서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28일에는 자국 학자가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최근 2년간 총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에 최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밥 딜런, 침묵 깨고 노벨문학상 수락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5)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상을 수락했다고 AFP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한림원에 따르면 최근 딜런은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이 전화통화로 노벨문학상 수락 여부를 묻자 "상을 받을 거냐고요?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딜런은 한림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말문이 막혔다"며 "영광스러운 상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딜런은 지난 13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고서 줄

곧 한림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따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딜런과의 연락을 포기했다며 "딜런과 가장 가까운 공 동 제작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해 전할만한 답변을 받았고 현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웨덴 작가이자 한림원 회원인 페르 베스트베리는 한림원과 언론의 연락을 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딜런을 행동으로 두고 "무례하고 건방진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체 승이클럽	거제 마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아-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업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캠핑/오션월드/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 소노펠리체 - 델피노 - 골프 앤 리조트 -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 - 엠블호텔 여수 - 엠블호텔 고양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약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정 계좌로 입금된 납입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900-99780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